

광주·전남 기업 ‘돈 가뭄’...상반기 산업대출 ‘역대 최대’

환율 폭등·원자재 수급 불안정... 3조5000억 돌파 전년비 170.5% ↑ 전남 제조업 21배 늘고 부동산업 88.4% ‘경춤’...증가율 전국 1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가 부담이 늘고 원자재 수급도 불안정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 산업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지역 신규 산업 대출금은 광주 1조4329억원·전남 2조964억원 등 3조529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3047억원)보다 170.5%(2조2246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광주 산업대출은 1조1381억원에서 1조4329억원으로, 25.9%(2948억원) 늘었다. 전남은 지난해 상반기 신규 대출이 1666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2.6배 수준인 2조964억원으로 뛰었다.

상반기 기준 광주·전남 산업대출이 3조원을 넘는

것은 관련 통계를 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렸던 2020년 상반기 2조5732억원(광주 1조9096억원·전남 6636억원)이었다.

전국 산업대출은 지난해 46조6865억원에서 올해 64조3478억원으로, 37.8%(17조6613억원) 증가했다.

전남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넘은 데다 더러 증가율 2위인 경북(170.0%)과 큰 차이를 내며 1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산업대출 증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부동산업 대출 증가가 눈에 띄었다.

제조업체들은 올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의 영향으로 자재·연

료 가격이 급등해 생산 원가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 원가도 비싸지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올 상반기 지역 제조업체들의 신규 대출금은 광주 4394억원·전남 3167억원 등 7561억원으로, 전년(3105억원)보다 143.5% 증가했다.

광주는 전년보다 48.7%(1439억원 ↑), 전남은 무려 21.1배(3017억원 ↑)로 늘어난 수준이다.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의 상반기 대출금이 7000억원을 넘긴 것은 사상 최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5년 상반기(5142억원)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이어진 부동산업 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상반기 지역 부동산업 대출금은 광주 4631억원·전남 1132억원 등 5736억원으로, 지난해(1933억원)보다 198.1% 증가했다.

부동산업 신규 대출도 이전 최고 기록인 2015년(5067억원)을 훌쩍 넘어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급한 불 끄듯 대출 수요가 급증했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대출금은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업황이 다소 개선된 영향을 받았다.

광주·전남 도·소매업 상반기 기준 대출금은 지난해 2020년 595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2021년 2866억원, 올해 2321억원 등 2년 연속 줄고 있다.

지역 숙박·음식점업 신규 대출금도 2020년 상반기 339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811억원, 올해 579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두 업종 신규 대출금 감소율은 도·소매업 19.0%(-545억원), 숙박·음식점업 28.6%(-228억원) 등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건설업의 경우 광주·전남 대출 수요가 었었다.

광주 건설업체들의 상반기 대출금은 1797억원으

로, 전년(2378억원)보다 24.4%(-581억원) 감소했다. 전남은 454억원에서 757억원으로, 66.7%(303억원) 증가했다.

이외 광주지역에서 신규 대출금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부동산업(247.7%),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156.0%),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146.9%), 제조업(48.7%) 등 순이었다.

전남은 제조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102.0%), 부동산업(88.4%), 건설업(66.7%), 공공행정 등 기타 서비스(26.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2.2%) 등 순으로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은행이나 비은행 모두 상대적으로 규제 덜한 기업대출 취급을 늘린 데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의 대출 수요도 증가했다”며 “국내 회사채 시장의 조달 여건이 나빠진 점도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이유”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8월 전년동기대비 각 5.8%·6.6% 올라...전남 외식물가 상승률 10% 육박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둔화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상승세는 5개월째 지속하고 있으며, 전남 외식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상승률 10%에 육박했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 5.8%·전남 6.6% 상승했다.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건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광주 3.4%·전남 3.8%)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달 반락했다.

올해 1~8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광주 5.0%·전남 5.6%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상승률(5.0%) 이상을 나타냈다.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

만 농축수산물과 외식 물가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인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광주 9.4%·전남 6.6%로, 두 지역 모두 5개월 연속 상승 추세다.

지난달 광주에서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 품목은 파프리카로, 전년 같은 달보다 91.2% 가격이 뛰었다. 이어 호박(82.2%), 체리(77.4%), 배추(70.7%), 굴(66.5%), 오이(66.2%), 무(49.9%), 상추(43.3%), 감자(42.8%)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남 상승률은 호박(82.8%), 배추(73.1%), 오이(70.5%), 열무(52.9%), 무(45.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외식물가는 4개월째 상승 중이다.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광주 8.6%·전남 9.7%로, 전남은 전국 평균 상승률(8.8%)을 웃돌며 17개 시도 최고를 나타냈다.

전남 외식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식당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각각 18.9%, 15.9% 올랐다. 전남도 소주 16.3%, 맥주 15.2% 오르며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크게 상승했다.

지난달 광주·전남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은 각각 6.8%·8.4%였는데, 등유(광주 62.1%·전남 78.1%), 식용유(광주 48.3%·전남 41.5%), 밀가루(광주 44.0%·전남 39.5%) 등의 상승세가 여전히 높았다.

한편 추석 앞두고라면, 조미료, 음료, 육가공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고됐고, 도시가스과 전기 요금도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10월에 또다시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질 전망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0곳 중 8곳 “추석 휴무는 4일” 10곳 중 7곳 “상여금 지급한다”

경춤, 794개 기업 조사

다가오는 추석 명절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은 연휴 기간인 4일을 모두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7곳 정도는 상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79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5.2%는 올해 추석 연휴에 휴무한다고 응답했다.

휴무 일수는 ‘4일’이라는 응답이 8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일 이상’ 8.6%, ‘3일’ 7.0%, 2일 이하 4.0% 순이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5.1%로, 이중 상여금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업은 92.6%에 달했다.

추석 상여금 지급 방식으로는 ‘정기상여금

으로 지급’이 답변이 6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 상여금 지급’(34.7%), ‘정기상여금과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3.4%) 등이 뒤를 이었다.

정기 상여금 지급 기업의 비중을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 중에는 85.5%, 300인 미만 기업 가운데는 62.4%가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5.6%가 작년 추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악화됐다’는 응답도 44.6%에 달했다. 반면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은 불과 9.8% 수준이었다.

올해 연간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많았다. ‘악화 예상’ 응답은 37.7%, ‘개선 예상’은 23.1%로 조사됐다. /박기용 기자 pbxer@



콘텐츠 공모 당선자들과 함께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가운데)은 최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3회 고객 대상 콘텐츠(UCC·일러스트) 공모전’을 열고 동영상과 삽화 부문 대상 수상자 등에게 상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시상했다. 수상작은 광주은행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볼 수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 선수들, 전국기능경기대회 활약

메카트로닉스 6연속 메달 등 14개 메달...손민서·전찬영 대통령 표창

숙련기술인들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광주시 대표 선수들이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4일 광주시기능경기대회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8일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린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광주시 대표 선수들은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3개 직종 18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벌였고, 광주시는 금형 등 37개 직종에 104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획득했다.

특히 광주시는 메카트로닉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해당 직종 6년 연속 메달 획득 기록을 세우는 동시에 출전 선수인 손민서, 전찬영 선수는 금메달 입상자 중 최상위 득점자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다.

의상디자인에서는 개인으로 출전한 강태석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산업제어에서는 광주자동차설비공업고등학교 조영웅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밖에 사이버보안, 냉동기술 등 5개 직종에서

5개의 은메달, 금형, 전기제어 등 5개 직종에서 6개의 동메달을 기록했다. 또 도자기 등 19개 직종에서 26개의 우수, 장려상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자동차자제수리, 자동차 정비 직종에서 4년 연속 메달을 획득하는 등 광주지역 주요 산업분야인 자동차산업 관련 직종에서 타 시도에 비해 강세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는다.

허서혁 광주시기능경기대회운영위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갈고 닦아 최고의 결과를 보여준 선수들과 지도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숙련기술인들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기능대회 입상자에게는 금메달 1000만원, 은메달 600만원, 동메달 400만원 등 상금이 지급되고,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 시험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1~2위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밖에 사이버보안, 냉동기술 등 5개 직종에서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전남신보·22개 시·군 소상공인 지원 워크숍 개최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지난 2일 NH농협은행 전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남도와 22개 시·군 소상공인 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 19 재확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전남신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증제도, 자영업종합지원 및 금융복지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2부에서는 2023년 전남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출연, 공공배달 앱 ‘전남 떡볶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

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안정적인 보증공급과 저금리의 정책자금 지원 등 제도권 금융지원의 지속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보증재원 출연이 필연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전남신보는 올해로 6년째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정양수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협력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31회)						2등 보너스숫자
당첨번호						19
6	7	22	32	35	3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213,957,563				8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66,957,450				64
3	5개 숫자일치	1,536,493				2,789
4	4개 숫자일치	50,000				132,815
5	3개 숫자일치	5,000				2,247,015

기아, 임협 가결·단협은 부결

기아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도출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임협은 가결되고 단협은 부결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지난 2일 화성, 소하,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총원 2만 8265명 중 2만5781명이 참여해 투표율 91.2%를 기록했다.

임협의 경우 모든 지회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어 찬성률 58.7%로 가결됐으나, 단협은 대부분 지회에서 높은 반대표를 받으며 찬성률 41.9%로 부결됐다. 가결 조건은 투표 인원 대비 50% 이상 찬성이다.

기아 노사가 도출한 임협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신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이 담겼다.

사내 복지를 다루는 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경조휴가 일수 조정과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와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전기차 구입 시 직원 할인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향후 재의결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향 및 사측과의 재교섭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